



제 19차 금강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

1. 일 시 : 2012. 4. 3(화) 14:00 - 15:00

2. 장 소 : 금강대학교 본관 대회의실

3. 자문사항

- 금강대학교 2011학년도 대학 결산에 관한 사항 : 별첨 원안과 같이 자문합니다.

성명	서명	가, 부	성명	서명	가, 부
최병학		가	김풍기(무원)		
조성환	조성환	가	이한규(월장)		
서문성		가	방두성(경혜)		
이원식	이원식	가	정재천(월중)		
박연석	박연석	가	배진문	배진문	가
박훈성	박훈성	가			

*외부인사의 경우 거마비(교통비) 영수도 서명을 통해 확인합니다.

제19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일시 : 2012. 4. 3(화) 14:00-15:00 / 장소 : 금강대학교 대회의실

< 참석자 : 최병학의장, 조성환평의원, 서문성평의원, 이원식평의원, 박연석평의원, 박훈성평의원, 배진문평의원 이상 7명 >

< 배석자 : 민주영 이상 1명 >

< 불참석자 : 이월장평의원, 김무원평의원, 방경혜평의원, 정월중평의원 이상 4명 >

사회자 : 지금부터 제19차 금강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평의위원회는 재적평의원 11명에 참석평의원 7명으로 대학평의위원회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본 회의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습니다. 2006년 9월 28일, 첫 번째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를 가졌으며, 이번이 열아홉번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예산의 자문 및 개방이사 및 감사 등의 추천 등 그 역할을 충실히 해 왔다고 자평할 수 있습니다. 본회에서는 2011년 대학결산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자 이렇게 본 평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본 회의 >

사회자 : 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최병학 의장 : 날씨에 많이 서늘해졌습니다. 학기가 시작한지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원래는 스님 네 분을 모시고 회의를 진행해야 하나 바쁘신 관계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이에 여기 모이신 의원님들과 대학평의회를 시작하기 하겠습니다. 이번 모임은 자문의 성격이므로 작년도 예산집행내역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3월 23일 중단 종의회 결산감사 시 1차 검토를 하였으며 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결산에 대하여 자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팀 박연석팀장의 설명을 시작으로 2011년 대학결산에 대한 자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처 기획조정팀 박연석팀장 2011학년도 예산집행내역 설명)

최병학 의장 : 기 설명한 자료에 대하여 참고사항, 개선사항,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훈성 평의원 : 지출부분에서 2010년 대비 2011년 증감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부분에 대한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구분하여 주실 수는 없나요?

박연석 평의원 : 수입쪽에는 국고보조금의 내역이 있습니다만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여 다음

부터는 국고보조금 지출내역을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학 의장 : 11페이지를 보시면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시설관리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당면과제는 학교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겠지만 교육이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총학생회장님도 인지를 하셨으면 합니다. 차후 학교측과 시설이나 복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를 감안하고 양보를 부탁드립니다.

박연석 평의원 : 지금 담당자가 안 계셔서 답변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6페이지를 보시면 국가근로 장학금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용못한 잔액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소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훈성 평의원 : 예전 학생복지팀을 담당시 경험한 것으로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근로를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잔액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학기 중에는 최대한 주중 20~40시간, 방학기간에는 80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산 책정할 때 30시간의 평균값으로 잡는다면 갭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큰 대학은 근로를 선발할 수 있는 인력풀이 많지만 우리 대학의 경우는 시간표상으로 근로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병학 의장 : 이에 대비하여 여유있게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을 하면 어떨까요?

박훈성 평의원 : 그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가 필요한 학생이 20명 정도인데 30명의 예산을 잡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원식 평의원 : 그럼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여 한 학생이 어떤 사유로 나오지 않았을 때 다른 학생이 이를 서브하고 장학금을 타는 방법은 어떨습니까?

박훈성 평의원 : 이는 불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교내와 교외 근로가 있는데 교내는 시간당 6,000원, 교외는 시간당 8,000원으로 교내의 경우는 국가지원이 80%, 대응자금이 20%, 교외는 국가지원 90%, 대응자금이 10%입니다.

박연석 평의원 : 그 단가는 정해져서 내려오는 금액입니까?

박훈성 평의원 : 네, 정해져서 내려오는 금액입니다.

서문성 평의원 : 모든 근로를 다 참석하는 학생이 있는가 반면, 다 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이원식 평의원 : 8페이지를 보시면 두충나무밭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평당 얼마인지 명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박연석 평의원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연석 평의원 : 평소 예산절감에 대해서 생각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대학평의원회 회의에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병학 의장 : 학교에서 학생들 편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못한 것 중에서 버스요금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학생들이 얼마정도를 부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숙사도 초기에는 무상제공에 식비까지 제공였지만 지금은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처럼 버스요금도 논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배진문 평의원 : 버스비용의 경우, 이운영 전 처장님께서 언급하였듯이 신입생에 한하여 요금을 받는다면 얼마나 학교에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학생들의

이질감만 높아질 뿐 시행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최병학 의장 : 어느 시점에서는 분명 이질감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재학생들의 양보가 필요합니다. 계속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후에 버스가 10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박연석 평의원 : 지출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연구비는 53%, 업무추진비는 예산 대비하여 63%입니다. 예산을 사용하는 부서는 전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예산을 삭감해야 합니다. 금년 예산도 많이 삭감하였지만 예산 못 쓰는 부서는 향후 예산 사용을 자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원식 평의원 : 전기 사용부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써야하겠지만 전기는 공공재 부분이므로 에너지 절감이 필요합니다.

최병학 의장 : 전기료 자체가 많이 상승하기도 하였습니다.

조성환 평의원 : 요즘 신축기숙사를 보면 절감 시스템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카드를 뽑으면 기존에는 약간의 전기가 들어가 불을 밝혔지만 지금은 바로 꺼지는 듯합니다. 시스템 구축시부터 그런 쪽으로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최병학 의장 : 학생회 차원에서 에너지 캠페인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훈성 평의원 : 학생회장님께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경우 외부장학금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전액 장학금이라는 것과 학생의 생활형편의 노출 등으로 외부장학금 신청이 저조합니다. 25% 기여장학금도 있으며 학교에 돈이 들어오면 학생지원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에 학생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조성환 평의원 : 학생들만 탓할 수는 없습니다. 마트에 가서 보면 적지만 기부금을 위한 영수증 통이 있습니다. 이처럼 학생들을 위해 어떤 것을 해 줄지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예산이 돌아갈지 홍보와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배진문 평의원 : 학생들이 원하는 새로운 예산을 편성시 학생들을 위한 꽃밭도 좋지만 학생들이 피부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노래방 방음시설을 몇 번 건의하였지만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훈성 평의원 : 노래방 리모델링시 방음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치상, 구조상 돈을 아무리 들여도 방음의 효과는 없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박스형 노래방이 그 대안이지만 구조상 관을 타고 들어가서 방음의 완벽한 효과는 없습니다.

배진문 평의원 : 이해는 하지만 학생들의 입장에서 적게나마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최병학 의장 : 교육역량 강화사업이 선정되면 총학의 의견을 받을 것입니다.

박연석 평의원 : 네, 모든 구성원이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병학 의장 : 그럼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2011학년도 대학결산 자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제19차 대학평의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의 폐회 선언과 함께 회의를 마칩니다.>